

“습관적 불순종의 대가”

사무엘상 15:17-23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치게 하신 것은 순종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라고 했던 아말렉왕 아각을 살리고 가축을 산채로 잡아 오면서 그가 말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것” 이라고 했습니다. “죽여서 없애는 것 보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죽여서 없애는 것 보다는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짐승을 많이 바친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며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 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사 1:11-13)

사울이 폐위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왜 불순종했느냐고 물으실 때, 사울은 자신이 순종했다고 대답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와 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왕 아각을 끌어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삼상 15:20-21)

아말렉왕 아각 외에는 다 죽였고 또 소나 양도 죽이되 좋은 것은 제사를 드리러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생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과 사울간의 아주 중요한 생각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이기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느냐를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수만명을 죽였지만, 한 사람을 살려 두었습니다. 명령의 99.9%를 수행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것이 순종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사와 순종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요소들을 씻음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예배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단지 맹목적인 의식으로서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즉, 사울에게 예배란, 일종의 거래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만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만큼 복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래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헌신을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분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빠진 사울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삼상 15:22)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순종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고, 의리와 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인간적인 관계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다윗은 인간미는 좀 떨어졌지만,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인간적인 모습이 좋아 보이고 호감도 얻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적인 모습 사이로 사탄이 틈타 그 관계를 이용하여 오히려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분만을 바라 보기에

인간미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 사람에게 사탄이 틈탈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주지 않기에 결국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대상 10:13-14)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매사에 크고 작은 것도 하나님께 물었던 것과 달리,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진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며, 순종하는 삶이 복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순종이 순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 22:2)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이 아들을 순종함으로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것은,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순종’이란 이름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부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기에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고,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물을 던진 것은 베드로지만, 고기를 잡게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더 가야 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지금 멈춰야 할 것 같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잘나고, 가진게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올해의 후반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이제 지나간 절반을 돌이켜 보고, 앞으로의 절반을 바라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혹시,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사울이 살진 짐승을 살려 두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 이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며, 마치 사울과 같이, 그 이유는 그럴 듯 하지만, 결국 ‘불순종’의 선택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혹시 내 마음속에 ‘순종’에 대해 도전을 주시는 일이 있을까요? 이런 저런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유들’로 인해 미뤄 두었던, 나의 ‘순종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진솔하게 나누어 봅시다.